

장흥군,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하고 본격 추진

총 54명 기본 소양교육 완료 “일반 취업 연계 노력”



장흥군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해 미취업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알렸다.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겐 직업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의 취업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매

년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지난해 12월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13명, 시간제 7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32명, 특화형 안마사 2명 등 총 54명이다. 일반형 일자리는 관공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며 전 일제는 주5일 40시간, 시간제는 주5일 20시간 근무한다.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계도 및 환경 도우미로 주14시간 월 56시간 근무하며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수행한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위탁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직무요령, 사업규정 안내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와 예방법 등 기본 소양교육 등을 수료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의지를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 장흥을 만들겠다.”며, “일반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1월부터 장애인 19만여명 매월 30만원씩 연금 받는다

인상된 연금 오늘 첫 지급...2021년 수급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전국 장애인 18만7000여명이 매월 최대 금액인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대 금액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1만 6000여명이 늘었다.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1월20일이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장애인연금 최대치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

다. 2021년에는 그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게 된다. 최대 금액을 받지 않는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던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1

문상필 與장애인위원장 “당원 인권교육 의무화”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17일 이혜찬 당대표의 발언으로 불거진 ‘장애인 비하 논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과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직자, 총선 출마자들에게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또 “총선 승리를 위해 출마자 혐오·차별 발언을 근절하고 당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홍보하기 위해 총선대책위 내에 인권본부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대책이 전국에 많은 장애인과 수많은 장애인 당원들에게 아픔을 달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 이를 설치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진정으로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차별과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찬 대표는 지난 15일 공개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썸’ 인터뷰에서 1호 영입인재이자 척수장애를 가진 최혜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을 언급하던 도중 “선천적인 장애인인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다보니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해 장애인 비하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방송 직후 당 공보실을 통해 발송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고, 이튿날인 1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당 차원의 혐오·차별 발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 대표가 발언과 관련해 네 차례 사과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당에서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안에 인권감수성 제고와 혐오·차별 발언 근절을 위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언급되고 공세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평생교육관, 설 명절 맞아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위문



광주 금호평생교육관(관장 양주승)이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교육관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재활시설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특히 금호평생교육관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독서프로그램과 사랑·희망 나눔 도서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해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힘쓰고 있다.

조인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